인문
상경
(오전)

2018학년도 신입학 수시
논술 전형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답안지와 문제지에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는 정답 외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마시오.
-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 고사 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퇴실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등)로만 작성하시오.
   (빨간색이나 파란색 등 사용 금지)
2. 답안 수정 시에는 지우개(연필, 샤프 사용 시)를 사용하거나, 가로로 줄을 긋고(볼펜 사용 시) 그 위에 재작성 하시오.(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금지)
3. 답안은 1장 이내로 작성해야 하며, 답안지 교체는 가능하나 기존 답안지 제출은 절대 불가합니다.
4. 답안지 교체로 인한 책임(시간 부족 등)은 요청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5.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1) 답안을 검정색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등)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기를 한 경우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1]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미디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광고하여 우리를 현혹한다. 광고는 마치 우리가 소비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고, 소비를 통해서만 최첨단의 현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려 한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은 신제품 구매에 적극 동참한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성향을 '소비의 이데올로기'라고 불렀는데, 이는 대중이 상품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소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를 '소비사회'라고도 규정한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의 소비 행태는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데 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품이 지닌 상징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사회는 이미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진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의 소비를 통해 '당신은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소수'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감성과 욕구를 자극하여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부추긴다.

<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수요가 있는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한다. 기업들이 대량으로 생산한 상품은 광고를 통해 소비가 촉진된다.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과 이미지를 소비자가 기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브랜딩(branding)'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를 늘린다. 광고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자본의 필수 전략이다. 우리는 광고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시도 광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처럼 소비사회에서 자본은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이 대량으로 소비되도록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대중의 욕구를 충동하고 확대재생산한다.

<다>

나는 나야!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건 죽는 것만큼 싫어.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건 인생을 의미없게 보내는 거야.

개성을 입어라!

JS청바지

[문제 1] 제시문 <가>를 근거로 제시문 <다>의 광고 전략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제시문 <나>에 비추어 제시문 <다>의 메시지를 비판적 관점에서 논하시오. (500자, 40점)

[뒷면에 계속]

*** 다음 내용을 보고 [문제 2]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게릿 하딘이 1968년에 발표한 논문 제목이다. 공유지란 종획(enclosure)이 있기 전에 중세 유럽에 흔히 존재했던 토지로서 주민이면 누구나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었던 토지를 말한다. 공유지를 이용하는 합리적인 주민은 공유지 전체의 최선 이용에는 무관심하고, 개인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 전체가 못 쓰게 되고 주민은 공멸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대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왔는데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사유화가 중시되고 있다. 사유화란 공유지에 재산권을 설정하고 시장에 맡기는 대책이다. 그러나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공유지를 사유화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유화의 비극'이라고 한다. 사유화의 비극은 공유지의 비극과 정반대다. 공유되어야 할 재산이 쪼개져 사유화되면서 투기적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제에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사유화에 의한 불로소득은 설정한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 발생한다. 시장이 완전하다면 모든 미래의 사정이 매매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하고 특히 장기적 미래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기 그지없으므로 물리적 수명이 무한 내지 초장기인 대상의 매매가격에는 미래의 사회 변화가 모두 반영되기 어렵다. 그 결과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토지, 천연자원, 환경 등과 같은 자연물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허나 지적재산권도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불로소득을 방치한 채 개방성을 제한하면 제한된 이용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이런 특권을 얻기 위한 경쟁, 즉,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가 발생한다. 지대추구 행위는 형평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도 일으킨다.

<나>

사람들은 교외보다 시내에서 주유 가격이 높은 이유를 시내의 땅 주인이 주유소 업자에게 지대(rent)를 높게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즉, 시내의 땅 주인이 주유소 업자에게 지대를 높게 부과하는 것은 교외보다 시내에서 주유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내는 교외보다 교통량이 월등히 많다. 이는 주유 수요가 교외보다 시내에서 더 큼을 의미하고,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더 많은 주유소 업자들이 시내에서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의 땅 주인 집에는 땅을 빌리고자 하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고, 그 결과 지대는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내에서는 지대가 높아서 주유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다.

<다>

손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흔히 실력주의, 업적주의로 번역되는 메리토크라시는 '더 베스트'(the best)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는 세습 귀족정과 달리, 능력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체제입니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마이클 영에 따르면 메리토크라시는 기본적으로 지능지수와 노력에 의해 수월성(merit)을 획득한 사람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메리트를 오직 시험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메리토크라시 사회라는 것이 손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머리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밀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깨는 것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중략)

손 교수의 말처럼 메리토크라시 또는 학벌사회의 정점에 바로 사법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 한번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소수의 합격자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게 문제인 이유는 수월성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다는 생각 자체가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과 다른 출발선상에 서게 됩니다. 또한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다시피 실력 못지않게 관계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우리 사회입니다. 법조계는 더합니다. 그러니 이런 관계를 물려받은 사람들 역시 출발 자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같이 비정상적인 경쟁률을 유지하는 시험에서는 당연히 운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도 실력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지만, 운은 수월성을 증명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음 면에 계속]

<라>

영화계에서 배우들의 출연료를 둘러싼 거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면 인건비, 촬영비, 홍보비 등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문제는 전체 제작비 중 출연료의 비율이 20%에 이르고, 그 중에 주연 배우 한 명이 가져가는 돈이 전체 출연료의 절반이나 된다는 것이다. 즉, 주연 배우 한 명의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10%에 이른다는 것이다. 유명 스타급에 속하는 배우들은 영화 한 편의 출연료가 4억 원에서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비해 조연이나 신인 배우들의 출연료는 턱없이 싼 편이며, 엑스트라의 경우는 하루 종일 일해도 고작 일당 몇만 원을 손에 쥐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대해 영화업계 관계자는 "잘 나가는 인기 배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해야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영화 제작자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부 관객들은 작품성이나 감독의 연출력을 신뢰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많은 관객들은 인기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인지도 때문에 극장을 찾는다. 따라서 인기 배우에게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말한다.

<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중 최상위가 건물주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총액은 국민소득의 4.2배가 넘어 일본, 프랑스, 호주의 2.4~2.8배를 크게 앞선다.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는 가구가 4분의 1이 넘고, 집 때문에 빚진 가구는 소득의 3분의 1을 원리금 갚는 데 쓴다.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어린이들이 땅주인보다 과학자나 기업가를 꿈꿨던 시절이 예외였는지 모른다.

가만히 앉아 돈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지대추구 본능은 없앨 수 없지만 이를 생산적으로 변환시킬 수는 있다. 경제학에서 지대는 토지임대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로 독점권을 보장받거나 경쟁을 막아 발생하는 초과이윤도 경제적 지대다. 기술 혁신으로 생겨난 특허권이나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지대추구 본능이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 예컨대 임대주택 막아내 집값 올리기, 정치권에 로비해 경쟁 피하기, 진입 장벽 쌓기 등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생산적 자산을 만드는 동력이 되게 유도하자는 것이다. 조지프 슘페터가 말한 혁신도 지대추구 본능을, 초과 이윤을 미끼로 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승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지대추구 행위와 혁신 행위는 모두 지대추구 본능에 뿌리를 두지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다. 넘쳐나는 지대추구 욕망을 혁신의 동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다.

<바>

정보 사회의 도래와 함께 지적 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대표적 사례가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이다. 카피라이트 제도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창작 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카피레프트란 카피라이트와 맞서는 개념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말한다. 이는 1984년 리처드 스톨먼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카피레프트 또한 창작 의욕 저하와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및 <마>를 참고로 하여 제시문 <다>, <라>에 나타난 지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대추구 행위를 설명하고, 지대추구 행위의 원인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시오. 또 제시문 <마>, <바>를 근거로 하여 지대추구 행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800자, 60점)

[끝]

이 면은 여백입니다.